

성화 2

(자기 부인과 옛사람의 죽음)

지난번에 옛사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palaios anthropos* 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문자적으로는 옛인류라는 것으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옛인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미로, 타락한 아담으로 부터 나온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두 죽었다고는 의미입니다 . 예수님이 오심을 기점으로 하여 타락한 문화는 끝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가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 부르는 의미가 확실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 한 시대를 풍미하는 사상으로 나타나면 그 것이 그 시대를 풍미하는 사상이요 지배하는 철학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과 사상 문화는 모두 옛사람적인 것이 됩니다. 옛사람으로 부터 나온 모든 사상과 철학이 바로 인본 주의입니다.

우리 각개인에게 있어서 옛사람은 그 사람이 자라난 환경, 교육 정도, 타고난 기질, 인종적 기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되어 옛사람의 인격을 구성합니다. **옛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면,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 납니다.

이런 사람은 영에 있게 됩니다.

로마서 8 :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중생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 :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으니 새사람에게 속한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난 새사람이 되었는데 옛생활, 옛사람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옛사람은 육이 개개인 안에서 인격화한 것이기 때문에 , 육이 전적 타락이고 전적 무능임과 같이 옛사람도 전적 무능이고 전적 타락입니다. .

첫사람 아담으로 부터 물려 받은 것은 모든 쓰레기이기 때문에 모두 던져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새로운 것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여기서 성화를 잘못 이해하여, 아담 이브가 벌거벗고 살았으니 우리도 벌거벗고 살자고 한다거나, 현대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타락한 것이니, 달구지를 끌고 살자고 해서는 않습니다. 환경을 아무리 바꾸어도, 타락한 인간이 있는 곳에는 육과 옛사람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바꾸는 것이 성화입니다.

옛사람과 자기 부인

그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신 성화의 길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16 :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 부터 나오는 것은 모두 육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 뿐이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 : 18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5 :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

마태복음 15 : 20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인간에 대한 이런 관점은 대부분의 종교가 비슷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욕심이라 하고, 고행과 수양을 통해 욕심을 완전히 버리면 해탈하여 부처의 경지에 들어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성품인 육은 고행과 수양을 통해 억제되는 것이지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는 주지 못합니다. 육으로부터의 해방은 주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2 : 23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왜 유익이 없습니까?

육으로 또다른 육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타락한 성품에서의 해방은 타고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이룩한 공로를 힘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력 구원을 말하고, 기독교는 타력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에서의 해방을 말하지만 거기에 이르는 방법을 극과 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차이를 알지 못하고 타종교의 길과 기독교인의 길을 동등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스님이 교회에 와서 축사를 하고, 석탄일에는 어떤 목사님들이 절간에 가서 축사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 : 20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골로새서 2 : 21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골로새서 2 : 22 (이 모든 것은 쓰는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골로새서 2 : 23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저는 타종교를 배척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체성을 잃은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독교가 제시하는 자기 부인의 길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길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음에 의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하수인으로 심어논 옛사람, 육이 각개인안에서 형성한 옛사람,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심으로 죄와 육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심으로 죄와 육과 단절되게 하셨습니다. 죄가 하수인으로 심어논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므로 죄로 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 :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죄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육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와 육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육이 우리안에 심어논 예사람이 죽게 하심으로 죄와 육에서 해방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외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교리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만이 가진 위대한 교리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 옛사람의 정욕을 없애 보려고 금욕, 극기, 참선등 별아별 수단을 다 동원해보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2 : 23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잘못 이해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제거되고, 육이 우리 안에서 죽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현세대에서 각 교파의 대표적 신학자의 주장을 모아놓은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니 보실 분들은 보십시오. Five Views on Sanctification ,Zodervan 에서 출판했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교파마다 달랐습니다.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죄와 육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완전 성화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죄가 우리 안에서 제거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죄와 육이 죽거나 제거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와 육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6 :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교파마다 성화에 대해 확립된 이론이 없다는 말은, 성도들도 확립된 성화론이 없이 방황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옛사람이 2000 년전에 돌아가신 예수와 함께 못밖힐 수 있나요?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2000 년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밖혀 죽었다 하는 믿음으로 됩니다.

2000 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2000 년 전의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2000 년 전에 생긴 일을 지금 나에게 적용하시므로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중생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와 육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죄와 육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와 육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죽은 자는 죄와 육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와 육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죄와 육에 대하여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죄와 육에 대하여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해 차근차근 공부해 보십시오.

이 완전타락한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여기서 각 단어의 의미를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palaios anthropos 로서 문자적 의미는 옛인류라는 뜻이고, 죄의 몸은 soma of hamartia 로 죄의 조직, 구조를 의미합니다. ‘멸하여’ 는 kartageo 로 to render entirely useless, abolish(폐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옛인류에게 속한 죄의 구조를 폐지하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타락하여 고쳐서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 서있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는 성화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옛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인간이 어떤 방식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 : 6 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 고 합니다. **미래에 못박힐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못박혔다고 하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자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만이 옛사람에게서 해방을 가져 옵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에서 이 믿음을 갖기가 너무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을 완전한 상태로 갖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기독교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 주심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을 갖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 안에서 시퍼런 눈물 뜨고 살아 있는 옛사람을 매초마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서 추론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추론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새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믿고, 여길 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말씀과 기도에 의해 옛사람의 바늘이 끊어집니다. 예사람으로 부터 자유가 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이 어떤 믿음의 상태 위에서 한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 : 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

